

전북개혁신학원 2020학년도 졸업식 성료

신학과 4명(43회), 목회학과 1명(47회), 신대원 4명(3회)

전북개혁신학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2월 1일(월) 오후 2시 전북개혁신학원 4층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이날 졸업예배는 교목처장 유호걸 박사(예림교회)가 인도하였다. 학생처장 이부교 목사(반석교회)가 기도하였고 홍보처장 김관희 목사(완주교회)는 고린도후서4:7~10절을 봉독하였으며, 상임이사 유남규 박사(어울림교회)는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설교자로 나선 원장 임종학 박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졸업생을 위한 호시를 통해서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실천처장 채영구 목사(금상교회)의 연혁 및 학사보고가 있는 다음에 졸업장 수여와 시상식의 순서가 있었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윤서구 박사(임마누엘), 신대원장 정완득

박사(성인교회), 교수부장 류현욱 박사(동명교회)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총회장 이경근 박사(명안교회)와 전이사장 정진호 박사(화평교회)로 개혁공보사장 황호관 박사(생명사랑교회)의 축사와 졸업생이 학교에 졸업 기념품을 전달하고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졸업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가 있었다.

교단사무총장 박만진 목사가 교단소식을, 총무처장 진상운 박사(예배예설교회)의 광고 및 인사 후에 이사장 이수봉 박사가 축도함으로 성대한 졸업식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날 말씀을 선포한 증경이사장 정진호 목사는 졸업생 전원에 졸업축하 금일봉을 전달하여 박수를 받았다.

졸업생 명단
신학과: 김경택 임미향 정선미 장현주



목회학과: 김소연
신대원: 박찬섭 정현순 임미향 정선미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김경택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총장: 정현주
전북개혁신학원 학장: 정선미
전북개혁신학원 신대원장: 정현순
총회개혁공보 사장: 김소연
전북연합회 회장: 임미향

총회개혁신학연구원 동문회회장: 박찬섭
전북개혁신학원동문회 회장: 김경택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김소연
전북노회회장: 정현주
전북노회회장: 정선미
전북중부노회회장: 정현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새 학기 개강

현대목회를 비롯한 6과목, 대면학습방식으로 수업진행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1월 23일(토) 새 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21학년도 첫 학기 학사일정의문을 열었다.

이날 개강예배는 교목처장 이다윗 목사(천양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교목처장 정영덕 목사가 기도하였으며, 마태복음 18:1~4절을 본문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임종학 박사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교단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가 교단 소식을 전해 주었으며, 이사장 윤서구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의 새 학기의 교과과목은 현대목회(박만진), 요한계시록(장영), 종말론(임종학), 교회론(윤서구), 구약총론(김요환), 선교신학(황호관)이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면강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은 총신사이버, 서울에듀사이버, imbc독학사, 미국 이코노믹대학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다각적인 기회의 문을 열어두고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한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제9대 이사장으로 김황용 목사 취임 ; 2월2일 임기개시

전북개혁신학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2월 2일(화)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제9대 이사장 이수봉 목사의 뒤를 이은 김황용 목사(호자제일교회)의 제9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지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날 드려진 감사예배는 전북중부노회장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법인이사 김중봉 목사(낙원교회)가 기도하고, 시편 92:12~15절을 법인이사 정대진 목사(온전교회)가 봉독하였다.

학우회에서 준비한 특송이 있은 후에 증경이사장 정진호 목사(화평교회) 원로가 "늘어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이취임식은 제9대 이사장 이수봉 목사(엘마오신교회)의 이임사와 신임 이사장 김황용 목사



(호자제일교회)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신구 이사장에게 이임패와 취임패를 각각 증정하였다.

이어서 축사는 총회장 이경근 목사(명안교회),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성인교회), 증경총회장 임종학 목사(원장, 재연교회)가 담당하였고, 총회개혁공보 사장 황호관 목사(생명

사랑교회)와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동명교회)의 격려사가 있었다.

교단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의 인사와 학교 총무처장 진상운 목사(예배예설교회)의 광고와 인사사가 있은 후에 증경이사장 최재철 목사(모악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메시지

새롭게 하소서!



총회장 이경근 목사 (명안교회)

"하루의 소망은 아침에 있고 일년의 소망은 새해 첫날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새 출발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교단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놀랍고도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 로마식민지 시대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치고 곤한 성도들에게 희망과 신선한 용기를 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참으로 역대급 초강력 한파가 몰아닥친 이 추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모방이나 약간의 변화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새롭게 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새로운 조형자인 것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또다시 음력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한 이즈음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새로운 조형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육체 즉 몸도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육체 즉 몸은 여러 가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다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48시간, 모든 체

세포는 25~30일, 피부는 28일, 손톱 발톱은 6개월, 뼈의 조직은 7년마다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체, 몸만 새로워져서 안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몸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안 보이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겉 36:26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시편 51:10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표현된 "정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신앙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게으른 신앙 등이 날마다 근신하며 기도에 힘쓰는 신앙, 생명력 넘치는 신앙,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신앙으로 더욱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자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음력으로 또다시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이 새로워지므로 가정과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 천국 같은 노회와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배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니 다 보전되느니라"(마태복음 9:16-17)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105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5회기 총회주일은 2021년 2월 14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전북동노회
1,000,000원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40,000원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원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이경근 목사 / 서기 신연식 목사 / 회계 박병욱 장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社說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힘써야 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고 그 방역에 지구촌이 비를저리 시작해서 1년을 넘겼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를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다급하다.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모범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쨌든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역대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턱에 닿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이런 상황인데 교회는 오죽하겠는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아예 구시대적 유포이 되어 버렸다. 모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힘을 써보겠는가? 열심히 모여도 힘이 들만인데 전혀 모임 수가 없으니 어려움만 가중되어 간다. 교회재정은 바닥이 났고, 신년 초인대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단은 교단대로 살림살이가 합집지 않을 수가 없다. 문을 닫고 폐업선언을 하기로 작심을 했다

면 몰라도 하던 일은 중단 없이 계속 해야 한다. 예년대로 총회사랑주일은 지켜야 하고, 거기 따라서 세례교인 헌금도 모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란다.

분명한 것은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IMF 당시 우리 국민들은 세계여타에서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금모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비를 내어 난국을 격파한 경험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포기를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교단사랑의 결기를 보이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과 맞닿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생각을 막고, 내가 급한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늘보고역시 닫히고 말 것이다. 어렵다. 그러나 더욱 힘을 쓰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 길이다. 그 어느 해보다 예수와 상관없이 참여하는 교회만 많아지면 성령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독려하자. 교단의 저력을 보이고, 총회사랑의 열기를 모아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

현상인가? 징조인가?

작금에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다. 코로나 19 감염 병이 지구촌에 물고 온 팬데믹 상태가 진정한 고사하고 번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더욱 긴장하게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을 필두로 백신접종률이 전개되면서 코로나 극복의 실마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격인 뉴스가 지구촌을 강타하였다.

미국 폭설과 한파 소식이고, 일본의 강진 소식, 그리고 양양을 비롯한 경북 안동과 예천의 산불 소식이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은 소소한 사 람이라서 갖는 기우일까?

미국 남부에 폭설을 동반한 북극 발 한파가 몰아닥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방판길에서는 연쇄충돌 사고소식이 코로나 감염 관련 뉴스를 덮어 버렸다. 이번 폭설과 한파는 눈 구경하기가 힘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이란소 등 남부지방까지를 덮쳤다는 그 사실이 미국시민들을 얼어 붙게 한다.

또한 지난 13일 밤에는 일본 후쿠

시마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여 일본 열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구촌에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는 일상처럼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구촌에는 이와 비슷한 기상이 번이나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종말론적인 징조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이다.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최후심판이나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식은 당연한 자연현상이거나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예보정도일 것이다. 마치 소동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기후현상 내지는 특이한 기상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손바닥만 한 구름 조각일지라도 징조로 보아서 긴장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런가 하여 성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전북개혁신학원 교수간담회

새 학기는 계획대로 개강; 교수와 학생 성지순례 예정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임종학목사, 재건교회)은 지난 2월 16일(화),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전체 교수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선 개회 예배는 교무처장 이경근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신대원장 정원득목사가 기도하고, 빌 3:17절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하고 학장 임종학목사가 "제자의 본이 되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총무처장 진상은 목사가 광고하고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이어서 계속된 간담회는 교무처장 이경근 목사의 2021년도 1학기 학사일정과 과목 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수부장인 류현옥 목사(익산동명교회)의 공지사항 전달과 새 학기 교수로서 지켜야 할 사항의 설명이 있었다.

끝으로 학장 임종학 목사가 직접 교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순서를 통해서 교수들의 건의사항 청취한 후에 새 학기에 강의를 담당할 교수들을 격려하고

충실한 강의를 당부하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교수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짐하는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학사일정대로 3월 8일(월)에 개강예배를 드리고로 했다.

특히 2022학년도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성지순례 여행을 하기로

전북개신원 성경원어 특강 예정

이스라엘 선교사 이 모세 목사 초청 특강; 2월 22일 개강

전북개혁신학원(원장 임종학목사, 재건교회)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재학생과 신, 평일생을 위한 헬라어 특강을 개설하여 신학도로서 성경연구의 새로운 도구를 마련해 줄 특별한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강은 2월 22일(월)에 시작하여 26일(금)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40여명의 재학생과 신입생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묘미를 충분히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자신에 차 있다.

특강에 참여할 학생들은 생소한 헬라어 강의가 난해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으나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현지인과 같은 헬라어 구사능력을 갖춘 강사가 학생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한편 헬라어 특강 강사로 나선 이 모세 목사는 현직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이미 지난 여름방학에 히브리어 특강

포토 뉴스



전북개혁신학원 제9대 이사장으로 김황용 목사가 취임했다.



결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께 충실한 강의를 당부하고 일제의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현재 전북개혁신학원은 2021학년도 1학기 신, 평일생을 모집 중이며 이미 등록했거나 예정자가 2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서노회 임원회 소식

증경노회장단 연석회의; 새 은혜교회 당에서

경서노회(노회장 하예성 목사; 동포종교회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 안산 새 은혜교회 회의실에서 임원 및 증경노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노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김요환 목사(송악권능교회)가 인도하고 회의록서기 심기석 목사(OO교회)가 기도한 후에 노회장 하예성 목사는 창세기 15:8 ~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솔개를 주의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증경노회장 조성영 목사(상암중앙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목 벤엘교회(재회대 목사의 조태용 은퇴장로)가 노회에 보낸 내용증명서의 처리에 관한 건이었다. 이 건을 성경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4인 수습위원을 선임하였다.

수습위원 : 하예성 목사(노회장), 김요환 목사(서기), 조성영 목사(증경노회장) 황호관 목사(총회 헌법위원)

總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4-10503호 발행인 이경근 사장 황호관 이사장 이종민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취재부장 유남규
제작번호: 농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4(연건동 195-15)
총회홈페이지: www.rpck21.org E-mail: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 eq)	-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수 : 2020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5)
3. 문의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회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해설
출판 보급

정가 : 27,000원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출판부에서
정일웅교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해설집
발행을 하였습니다.
전국 노회별 단체주문
할인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 담당 이다윗목사/010-2931-0691
우리은행/1005-604-047069(찬양교회)

초대칼럼



曹牧 文 용길 목사
(한미음교회 원로)

요즘 가장 민감한 것이 지도자들의 행태요, 정치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구별할 것 없이 다 똑같다고들 이구동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로 지도자 부재시대를 그대로 겪고 있음이다.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는 교육의 책임도 크고, 앞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전통의 부재역시 무시할 것이라 싶어진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숨겨진 실제 책임자는 부모라는 점을 확실하게 부각하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인물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알리고자 할

때 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어머니다운 삶과 자녀들에 대한 그 가문의 훈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모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옛날, 왕정시대에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임금이었, 그는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쥔 권력의 최정점에서 있었기에 한 사람 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이었는데 이러고 보니 왕의 책임은 더없이 크고 짐은 국가다' 라는 말을 남긴 프랑수아 14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는 이집트 바로 왕의 이야기가 심상찮게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도 두 임금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아굽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 시대의 바로(에페네프/이집트12 왕조왕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시대의 바로(아멘호테프1/이집트18왕조) 왕이다. 이 두 사람은 400여 년의 시간적 선후가 분명하면서도 선악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선정된다.

그리고 그 선악의 특징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엇을 위해 동용하여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결론은 분명하다.

물론 요셉은 죄수의 위치에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각각 동용되어 세상에 그 진가를 드러내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혈통은 순수한 아굽의 후손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셉을 동용한 바로 임금, 그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선택과 동용으로 나라의 인위를 결정짓는 용단을 내렸을까? 그래서 바로에 대해 나는 이런 생각을 펼쳐보았다. 먼저는 바로가 나라의 안위와 복지에 평소 고민하는 지도자였다는 생각을 해 본다.

바로는 태평성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도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때 암소와 곡식이자 꿈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 온통 나라가 발라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을 터이니 가히 이런 짐작은 가능한 이야기 가 아니겠는가?

다음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신하들과 박사들과 술객들의 힘과 술기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욕에 갇혀있는 죄수 그것도 히브리인 바로 이방인 요셉까지도 바로는 불러 자기 앞에 세운다.

끝으로 바로 임금은 그 수많은 위대한(?) 이집트의 신들을 제쳐두고 히브리인의 신 엘로힘 하나님의 계시를 납작 엎드려 귀 기울여 듣고 선명한 순종과 계시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대변자 요셉을 제 1인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집트에 널리 선포한다.

"너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는가?"

"나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나의 모든 백성들은 너의 명을 따를 것이다."

"너를 내가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지도자들은 이집트의 지도자 바로 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야할 것이다.

우리라면 이집트라는 제국의 실권자로 통치 권력의 이양을 거침없이 실행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런 위치에 서면, 고집 불통 독불장군이 되어 자신의 사명과 나라의 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뒤흔치고 뒤흔드는 듯이 하는 이러한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데 바로의 이런 태도와 결단이 요구됨은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은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자들의 협력의 시대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바로를 배워야 한다. 바로를 배우자. 바로를! 요셉을 높이세운 그바로를 배우자! (* 曹牧 文용길 목사는 한미음교회를 개척하여 평생목양에 헌신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문물지 시집(1권, 2010년) '아담과 하와'를 펴낸 후로 15권의 시집을 낸 중견시인이시다. 그 분의 경륜 있는 지혜를 기대하며 개혁공보 지면에 정중히 초대한다. *)

동 정



이경근 목사 - 졸업식, 취임식
이경근목사(총회장, 평안교회는 1월 18일(월) 유나이티드 명예 신학박사 학위식 사회를 보고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축사를 하였으며, 2일(화)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도 축사하였고, 16일(화) 교수간담회 사회를 보았다.



임종학 목사 - 졸업식, 설교
임종학목사(중경총회장, 재인교회는 1월 18일(월) 유나이티드 명예 신학박사 학위식 설교를 하였으며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설교를 하고 2일(화) 이사장 이취임식 축사를 하였으며, 6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개강예배설교와 강의를 하였으며 16일(화) 교수간담회 설교를 하였다.



류현옥 목사 - 격려사, 축사
류현옥목사(중경총회장, 동명교회는 1월 18일(월) 유나이티드 명예 신학박사 학위식 격려사를 하였으며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격려사를 하였으며 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취임식 격려사를 하였다.



황호관 목사 - 격려사, 축사
황호관목사(중경총회장, 본보사장은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격려사를 하였으며 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취임식 축사를 하였으며 2월 6일 총회신학 강의를 하였다.



정완득 목사 - 축사, 격려사
정완득 목사(중경총회장, 성인교회는 1월 18일(월) 유나이티드 명예 신학박사 학위식 축사를 하였으며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격려사를 하였으며 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취임식 축사를 하였으며 16일(화) 교수간담회 기도를 하였다.



윤서구 목사 - 축사, 격려사
윤서구목사(중경총회장, 임대누엘교회는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격려사를 하였으며 6일(토) 개혁신학연구원 개강예배 축도를 하고 강의를 하였다.



정진호 목사 - 축사, 설교
정진호목사(화평교회원로는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축사를 하였으며 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취임식 설교를 하였다.



김황웅 목사 - 전북개혁신학원 재단 이사장 취임
김황웅목사(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 효자제일교회는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참석 하였으며 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으로 취임식사를 하였다.



유남규 목사 - 축가
유남규목사(전북중부노회장, 어울림교회는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특송을 하였으며 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으로 취임식 사회를 보았다.



박만진 목사 - 졸업식, 한교연
박만진목사(총회사무총장, 덕수제일교회는 2월 1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참석하였으며 2일(화) 이사장이취임식에도 참석하고 6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강의와 16일(화) 한교연 임원회의 참석하고 2월 개혁공보 편집을 하였다.

신학강좌



정일용 박사

참고문서 : 정일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홍신대출판부 2012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오늘날 기독교교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요리문답서에 근거하여 교리적인 체계를 배우는 일로, 학습자에게 기독교신앙에 대하여 신앙적인 눈(영적인 시각)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을 뜨며, 동시에 자신의 신앙관을 세우는 일 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즉 '신앙관'이란 믿음으로 하나님(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진리를 이해하며, 그 진리에 순종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근본태도를 놓아 주는 일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쉽게 이해되며,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도

쉽게 이해를 얻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적인 체계를 따라 학습한 신앙내용은 곧 삶에서 다른 주관적인 종교적인 체험이나, 신앙행태(이단)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가치관들의 영향에서 진리의 올바른 바를 쉽게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없는 신앙관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다른 목소리를 분별하는 진리분별의 능력획득도 어려워지는 것이다.22) 그러므로 신앙관을 제공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제공을 위하여 신앙교육과 요리문답교육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성경해석의 기본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역시 신자로 하여금 기독교신앙에 대한 신앙교육의 '선 이해력'(先理解力)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성경의 요약으로서 중요하며, 성경본문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선 이해력'은 신앙학습자로 하여금 다음 단계에서 성경본문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성경해석의 자생능력이 된다. 즉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자질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성경의 지나친 주관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올바른 성경이해에 도움이 되는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일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으로서 교리적인 체계의 학습을 통하여 획득된 신앙교육의 '선 이해'는 오래전부터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되었던 성경해석학적인 근본 질문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하였다. 즉 현대신학에서 진보주의자들에 의하여 성경의 '역사 비평적 방법'(Die his tirsch -kritische Methode)이 성경해석의 근본원리로 도입된 이래로, 전통적인 신앙교육의 '선 이해'의 선입관 없이 성경본문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즉 역사비평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경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성경본문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통찰이 중요한 만큼, 역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어온 신앙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된 신앙교육의 신학적 관점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다.23) 즉

교리의 선 이해를 전제한 성경해석 없이는 기독교신앙은 올바르게 이해되거나, 계승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24)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신앙교육과 요리문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4) 교회공동체의 통일성을 견지해 주는 신앙의 표준적인 역할이다.

필자가 앞에서 밝힌 대로,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의 교회의 신앙고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앙고백에 근거한 요리문답교육의 목표는 언제나 공동체의 찬양의 목소리로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이와 같은 일치된 신앙고백으로 인도하였고, 동시에 다른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시대에 교회공동체를 지역과 종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의 개척교회와 장로교회를 하나의 통일된 교회공동체로 견지되게 해 준 표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며, 또한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교회공동체의 통일성을 견지하

게 해 주는 역할로서의 신앙표준과 통일성의 역할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며, 역시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요한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관용하며,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하나로 엮어 가는 다스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까? (신앙의 플레라스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생각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공부'가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을 대체하는 신앙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그 일에 열중해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방법을 적용할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경공부방식에 전적으로 의존된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과 그에 따른 신앙행태들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경해석의 지나친 주관성과 주관적인 신앙체험의 주장들로 인하여 역사적인 신앙교육과 신앙고백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호에 계속)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종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6,200,000	김양성	650,000	배정옥	50,000
총회신학교	3,000,000	김진영	300,000	이부교	300,000
김 정 용	1,800,000	박춘배	350,000	박숙희	50,000
류 현 옥	800,000	이경근	800,000	김충봉	300,000
박 형 진	2,000,000	강천기	50,000	서용진	50,000
경기 노회	1,600,000	강대인	100,000	박순중	50,000
전북 노회	1,300,000	신대식	100,000	이다윗	50,000
서울남노회	400,000	이해동	200,000	김정호	350,000
서울동노회	1,200,000	부평갈릴리	50,000	윤서구	200,000
전북동노회	1,200,000	육한수	50,000	박경남	1,000,000
전중 노회	650,000	노성수	50,000	임용태	50,000
남부 노회	100,000	대한예수교	50,000	신광섭	50,000
경서 노회	800,000	전기원	50,000	등문화	20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년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년 구독료는 5만원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년간 30만원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우)03127 서울시 중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195-15)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매일 제자됨

누가복음 14장 25-35절

장영광 목사
(증경총회장)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3.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만약 기독교인의 삶을 홍보하라고 한다면 흔히 행복이나 행동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한다거나 생활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구원이 자력으로는 얻기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 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뜻과 모든 논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한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중심주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생의 목적과 의미와 모든 것을 삼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결을 맺는 자입니다.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힘든 일을 잘 견디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는 삶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과거의 일회적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죽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진 물질이나 다른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땅대를 건축하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따르는 마음으로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자 우리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에게 순종(막10:1-16)과 온전한 희생(막10:17-31)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좇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순종과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따릅니다.

첫째, 생명의 풍성한 삶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얻는 기쁨입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현대는 감사를 잊은 시대요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을 잊은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넷째,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사명을 감을 가지고 의미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매일 매일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박만진 목사
(개혁교단 사무총장)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와 총성 없는 전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WHO가 지구촌 팬데믹을 선언한 후로 1년을 넘겼다. 늦었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28일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집계 따르면, 2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45만5672명, 사망자 2만3999명, 회복자 9975만5847명이 됐다. 1억에 육박하는 놀라운 숫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월 29일 기준 누적 확진자 77,395명, 사망자는 1,399명으로 알려졌다. 이런 엄청난 방역상황에서 교회의 생존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코로나 19! 교회가 타격대상인가?

인타깝게도 일부이긴 하지만 특정 교회나 단체가 코로나 19 중환자실의 중심에 있음에 대하여 유익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 때문에가 아니라 정부가 세우고,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권장하는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선교지

겨울 같이 없는 봄날 씨가 이어지더니 눈 폭풍이 며칠째 계속되는 변덕스러운 2월 하순에 두 부부와 몇 영혼들을 주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동역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응원

지난 1월 말 동부 E시에서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헌신자 동역자 V형제(42) 부부가 승용차로 12시간이나 걸리는 고향 K시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온 짧은 여정에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서 유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그가 E시의 미국인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귀한 사람입니다.

C는 의미해하면서 일단 자살을 미루었고 다음 날이 밝아오자 자신이 매일 지나가는 골목길 익숙한 건물의 공동

로 해서 스스로 파해를 당하고 이웃에게 누가되는 일은 상식을 벗어난 일일이고, 민용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은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섬기며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을 지원하여야 한다. 희생적으로 말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의료진을 향하여 격려와 박수를 보내듯이 그런 박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평소에도 교회를 향하여 굶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반기독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때의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발미라도 주어진다면 침소봉대하여 총공세를 편다는 것을 안다면 행동거지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모든 일에 앞장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소명이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 과거 한 켜 켜 병(일명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소외당하고 있을 때, 남해 고도의 작은 사슴섬, 소록도에 일곱 예배당을 세우고 목사를 파송하여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었고, 치료되어서 섬을 떠나온 이웃들을 위하여 세워진 동네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구락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런 교회가 코로나 19로부터 일어설 수 없는 결정적인 편지를 얻어맞는 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행여 정부 혹은 어떤 세력이 코로나 19를 교회에 타격을 입힐 기회로 삼을 발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코로나 19로부터 일어설 수 없는 결정적인 편지를 얻어맞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생존법을 생각한다.

코로나 19 시대 예배를 어떻게 하나?

코로나 19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있다. 만나지 못하고, 피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만났다면 마주보고 대화는 하지 말고, 생각이나 했던 일들인가? 이런 상황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최대의 기쁨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비대면 예배" 언제 생각이나 했던 일인가? 모이지 않는 예배! 상상해 본 일도 없는 희한한 일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어찌 당혹스럽지 않겠는가? 더구나 예배는 교회의 최우선순위이다. 예배 없는 교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의 교회가 강요당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정부가 불러들인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역병인 이 역병을 발미삼아서 예배를 제한하려거나 교회를 통제해보려는 얕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발미삼아 예배당 문을 닫아걸었던 그런 혹역사가 한국교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교회로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이다. 이때

를 위해서 영상, 혹은 화상회의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화면에 나타난 관객들 앞에서 신명나게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서 트롯트 열풍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술력을 교회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간단한 초보적인 영상송출 방식이나 유튜브 방식이 아니라 화상회의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교회가 있다.

소셜, 초원기에 들어간 작은 교회들

모 교단의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사태 1년 동안에 일천여 개체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절박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샤프를 내렸다는 아픈 뉴스를 전하는 언론사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했다.

이런 일들이 소리 없이 진행될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하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서 유지했던 교회들일 텐데, 대책이 없다. 자영업자들처럼 재난구호금을 청구할 처지도 아니다.

정해진 초소환의 사례비는 고사하고 예배처소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버티라는 말인가? 처절한 그들, 작은 교회들의 몸부림이 눈에 선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참 목자들의 웅장거리는 고통소리와 외치는 듯하다. 어쩌랴! 어쩌랴! 소셜위기가 초입기인데! 대형교회를 바라보는 초소형 교회들, 도회지 교회를 쳐다보는 농어촌교회들, 이 격차를 해소하고 공존,

상생하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교회의 연합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 교단은 374개이다. 이 통계는 교단의 숫자일 것이다. 교단 역시 연합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장로교의 경우 총회, 노회 당회가 교회의 정치체제요, 치리체제이다.

이런 조직만으로는 정부를 향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사회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해서 생성된 것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름 하여 한기총이라고 이해한다.

이러저러한 일로해서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가 생기는가 싶더니만 최근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우리가 한국교회 대표라면서 얼굴을 내밀고 대표자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한국교회의 연합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혹 정치에 밝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감각이 뛰어난 몇 사람이 아합해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서 대표자 연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국교회 모두를 아우를만한 그런 연합체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 연합단체가 있다면 이런 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있겠나 싶어하는 말이다. 코로나 19!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없다.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쁨 사랑의 2월 소식

체를 노크했고 외국인 사역자를 방문한 V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덕분에 그토록 앓아눕고 있던 아로골과 마약을 끊을 수 있었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며 6개월 만에 빛도 모두 청산하고 세례를 받은 후 자신과 같이 삶을 포기한 다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K시의 저희 공동체를 방문한 V 형제도 E시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만난 암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아내 O 자매(37)와 함께 강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눈이 많이 오는 E시의 스카프

전문여행사에서 일하며 주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V 형제는 병원의 원무과 경력으로 직장을 찾게 되면 부모가 계신 K시로 이사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가 K시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희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라 할지라도 V 형제가 E시의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중보하며 비록 정부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식당 내 식사가 금지된 상태여서 점심 대접은 할 수 없었지만 준비한 응원 금(?)을 전해주며 축복과 기도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응원

1월 초 믿는 자 모녀가 K시에서 1시간 반 거리의 B읍에 있다 해서 S자매(49)를 응원하기 위해서 시골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방문했습니다.

S 자매는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T국인 2세인데 T 국어도 어눌하고 억양도 강해서 원활한 대화가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담을 허물기에는 충분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15년 전 결혼생활에 실패 후 불가리아에서 열린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머니의 고향인 B읍을 방문하게 되어 저희와 만날 수 있어서 축복하며 기도로 응원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총회개혁공보 1년 구독료 청구 협조문



총회장 이경근 목사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총회개혁공보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모두들 힘들겠지만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 개혁공보 1년 구독료 5만원, 명함광고비 30만원 한번 납부해주시면 신문발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회 분납하셔도 됩니다.
송금하실 때 꼭 교회명이나, 담임 목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개혁공보 구독료 1년 5만원
교회 명함광고비 1년 30만원
노회 파송비 매월 10만원

계좌번호 농협/ 301-0140-5587-4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문의/ 010-6358-0191 편집국 / 박만진 목사



총회개혁공보사 | 발행인 이경근 목사
이사장 이충년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더불어 생각할 正論

진정한 대화의 능력



류현옥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인간은 대화하는 동물이다. 이 대화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를 대화가 단절된 시대 라고 한다. 진정한 대화가 없으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화의 단절로 많은 불행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 가정의 불화, 사회의 불화 등의 원인은 대화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는 TV와 라디오, 영상매체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소리를 보고 듣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거나 가고, 불행한 일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은 많은데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한다. 언어구사력이 뛰어나고 말을 주도해간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설명도 대화가 아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대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대화가 아닌 설명일뿐이다. 설득도 대화가 아니다. 말만 많이 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는 대화가 될 수 없다. 대화란 말로 이야기를 하되 속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 가운데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듣는 것이 대화이다.

①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한다.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의 아래에 서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한다. 이것이 대화의 기본 자세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이 되거나 설명 설득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대화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심으로 우리

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대화이다. 사마리아에 수가라하는 동네를 지나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받던 한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그 여인의 심정과 그 여인의 필요를 이해하시면서 대화하셨다. 남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였지만, 주님은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마음으로 그녀를 대해 주셨다. 그 여인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진정한 대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② 참고 인내할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대화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대화가 아닌 말을 주고받을 때가 많다. 때로는 기분이 조금 상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다. 때문에, 대화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는 대화가 상할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 참음의 뜻을 입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좋지 않은 네 가지 대화 습관이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것, 상황에 따라 별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 상대방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 무의미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등이다. 대화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대응해야 하며, 불만이나 푸념을 자제하면서 친한 사이라 해도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

③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되, 세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통한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 경험, 이슈를 가지고 대화하게 된다. 비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예측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런데 그 대화가 단지 우리 안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참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연결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요일 3:18절에서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진실함이 나올 수 있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종성교회 담임)

코로나19 바이러스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방역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집단행동이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우리 기독교계 역시 엄청난 피해를 피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자체이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예배가 흔들리면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음이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가시적인 큰 피해는 물론이고 예배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간단한 이슈를 넘어 신학논쟁으로 비화할 기미가

저 보인다.

최근에는 기독교계통의 불간전한 몇몇 단체들이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강행한 대형집회가 집단적으로 확인되는 진위지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수준을 지나 심각한 우려와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여파로 일부 교회와 기도원에서 적잖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고 진원지라도 된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칫 교회와 당국 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까지 날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대단한 기치를 내걸고 방역지침 중의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예배당 좌석을 꽉 채운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다.

행정당국은 이에 맞서 예배당 건물 전면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방역과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방역지침사이에서 야기된 심각한 충돌의 현장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물론 초대교회시대에 그러했거나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특정국가에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런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시행중인 비대면 영상예배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독재적 정치행위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의 전체적 방역지침에 의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탄압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코로나 19의 무차별적인 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역지침을 종교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비민주적 정책이라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빚어진 세계적인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육자책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방역지침을 잘 지킨 교회의 비대면예배를 통하여 발생한 감염자 내지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무조건 공중매체를 전면 금지시키거나 참석인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방역지침의 준수를 전제로 예배당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해서 교회의 교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바이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지침서인 성경에서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4-16) 하셨다.

또한 (A. 스타임페)는 '우리 성도들은 선한 교인은 되고 나쁜 시민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좋은 시민만 되고 나쁜 교인이 되어도 안 된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편협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이쯤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신앙의 자유와 방역지침 사이의 갈등을 파할 지혜를 구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앞세워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여 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먼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모범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부터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신학&신앙



유정신 교수
(한성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호에 이어 하나님 이해하기 여섯 번째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으로 325년 니케아 공회의 이래 기독교인 이면 누구나 삼위일체론을 신학적 정통선으로 수용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삼위일체론은 로마 교회사 개신교 간에 논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방정교회에서도 삼위일체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성령의 발진설에 있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신관으로서의 특

성을 드러내는 이론이다.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Carl F. Henry)는 자연주의 신학이나 실존주의 신학 및 과정신학과 분석신학은 그 이본상 삼위일체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삼위일체론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 1위의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Ground of Being)으로 어머니처럼 생산의 실제(Quality of Giving Birth)로, 제2위의 하나님은 희생의 상징(Symbol of Self Sacrifice)으로, 제 3위의 하나님은 희열의 상징(Ecstatic Character of Spiritual Presence)이라고 말하였다.

신장로교 신학자 존 맥과리(John Macquarrie)는 삼위일체론을 상징적 표현으로 제 1위의 하나님은 태초 이전의 존재(The Primordial Being)로, 제 2위의 하나님은 표현된 존재(The Expressed Being)로, 제 3위의 하나님은 연합된 존재(The Unity of Being)로 보았다.

기독교 신학 경계에 절대적 역할을

하였던 어거스틴(Augustine)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본질(Substance)을 가진 연합된 존재로 분리할 수 없이 동등한 본으로서 세분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장로교 신학의 거장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삼위일체란 아버지와 아들 및 성령을 각기 구분되는 품성으로 한 하나님이나 세 품성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앙고백서 역시 제 9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으로 같은 본질을 가지셨고 능력과 영광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요'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임에 틀림없으나 현대에 들어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학에 유입되면서 보수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으나 삼위일체론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를 지닌 기독교의 절

대적인 진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성서에 근거하여 정립된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이해하는 일은 모든 기독교자들이 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중요한 신앙고백이 되어야 하겠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존재 상태를 서술하는 술어로서 1위, 2위 3위의 하나님은 그 내부적, 상호 관계 및 품성적 상태에 있어 영원하고 단순한 하나의 본질(Essence-Substance) 가운데 각기 다른 세 품성(Person-Subsistence)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삼위일체가 존재론상 삼위일체(ontological trinity)와 사역상의 삼위일체(economic trinity)로 구분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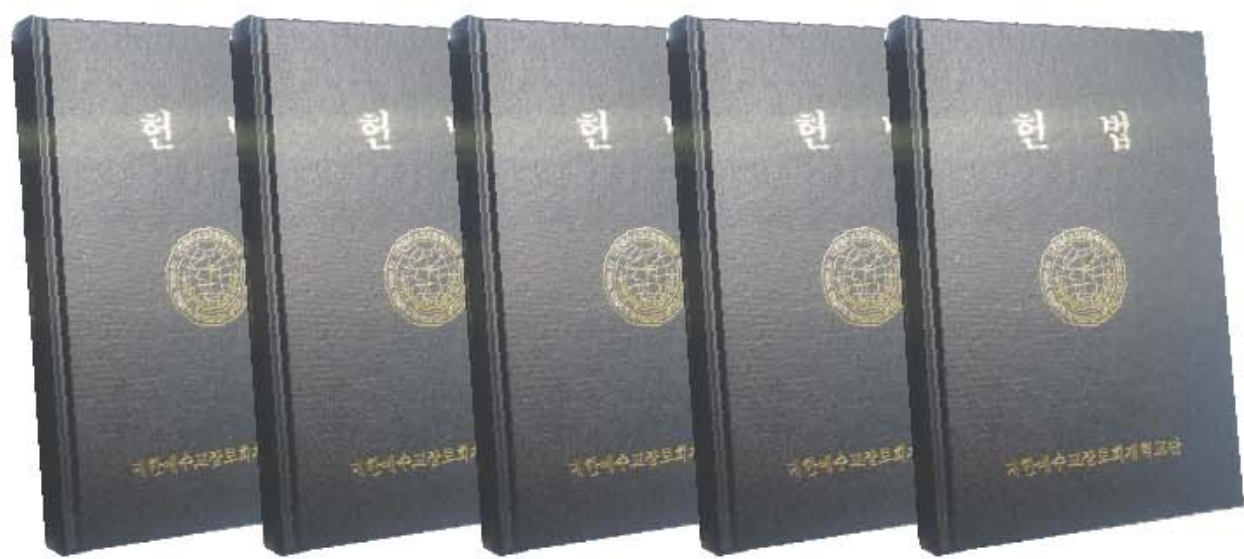
존재론적 삼위일체(Ontological Trinity)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단순한 하나의 본질 가운데(Essence-Substance) 세 품성(Persons-Subsistence),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

령이 각기 구분되나 세 품성은 동등하며 하나의 본질을 영원토록 공유한다는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관계(Generative Relationship)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관계는 발진 관계(ProceSSIONAL Relationship)로 호칭되나 이 모두 영원하고 (Eternal) 필연적(Necessary)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사역상의 삼위일체(Economic Trinity)는 물질세계의 창조, 보존 및 죄인들을 예정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지정된 관계(Appointive Relationship)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업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와 예정 등을 계획하시고 총괄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 또는 계시의 총화로 제시하셨으며 아들, 독생자 또는 인자로 호칭된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여 구속의 역사를 실제 적용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이

개정헌법 보급



비치용 10,000원 / 소장용 15,000원
주문 : 노회, 신학교 및 개인별 택배(10권 이상) 주문 하세요.

주문전화 / 02-742-3538 사무총장 : 010-6358-0191
통 장 / 동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 이경근 목사 사무총장 : 박만진 목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지언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지도자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을 말한다. 지도자는 동기를 이끌어 내 주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잡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타인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 보여 주어야 한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본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숭선수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숭선이란 남보다 앞장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범은 다른 이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숭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모든 자 앞에서는 삶의 숭선수범을 보이고 있는가? 두 곳의 자치단체장의 선출하는 선거철이기에 정쟁공약이 많다. 지도자란 본들이 약속 이행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은 지도자의 삶에 격이 맞지 않다. 지도자는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의 신뢰도를 지켜 보여야 한다. 이것이 선진사회로 그리고 선진 국가로 가는 길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출마한 지도자들 중에 공수표와 빈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일까요?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빈약속이 많이 남발된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더욱 그렇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아울러 잃을 거리가 있는 편이다. 요즘에 교회인사들 중에 사회의 사표가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다. 그러기에 바른 지도자의 삶이 더욱 필요하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은 나 바울을 본받으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 주셨다.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

지도자의 삶

섬김의 본을 보였으며 아울러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영광스런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

우리는 어디 그런가? 높은 자리에 없기에 혈안이 되었다. 자기 알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지도자는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 모든 일에 숭선수범을 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앞서 죽음으로 숭선수범을 지도자의 삶으로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과 같이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 이 시대는 겸손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자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나에게는 전부가 바보인가? 나만은 잘나고 똑똑하고 모두는 나보다 못하냐? 아니다. 겸손은 숭선수범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숭선수범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순종만이 숭선수범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은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지도자의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 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윗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하시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을 하셨다. 숭선수범은 기독교인이 지킬 의무와 자제이다. 지도자가 남보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살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명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희생하는 겸손의 삶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도자의 삶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열매가 있는 삶으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로 모든 이에게 자기를 자랑하셨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다.

광야의 소리



황호관 목사
(경중교회장, 본보 사장)

몇 일전 언론매체에 보도된 대영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빌슨 제독과 트라팔가 광장을 소개한 글을 읽었다. 만감이 교차되면서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복잡해졌다.

"하느님,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그의 마지막 전투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적군이 쏜 총탄을 맞고 고통 속에 드러난 빌슨의 기도였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로부터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빌슨 제독의 이 이야기는 조선의 지랑스러

운 장군 이순신의 전승 담이 아닌가? 1597년, 노량해전에서 여지없이 패전하고 퇴각하던 왜놈의 총탄을 맞고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장렬한 마지막 장면의 편박이라는 생각이 든다.

1804년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이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앞세워 영국 침공계획을 세웠다는 위중한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당시 지중해 함대사령관을 맡고 있던 빌슨 제독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빌슨이 누구인가? 한쪽 눈과 팔을 잃으면서도 자신이 지휘한 주요 해전을 승리시킨 신화적 존재로 추앙하는 인물이었다.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트라팔가 해전은 1805년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 지브롤터 해협 카디즈 사육을 붙게 만들었다.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의 군함 스물세 척 중 스무 척이 격침되거나 나포된 반면에 빌슨은 단 한 척의 손실도 없는 완전한 승전이었다. 이로써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물

락의 길을 걷게 되고, 영국은 향후 100년간 해상 강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리며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으니 그 전투는 실제로 역사적 대전환점이었다. 영국 수도 런던을 방문하면 꼭 둘러보아야 하는 관광명소가 트라팔가 광장이다.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이 평화문 광장을 빼 놓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광장은 원래 '윌리엄 4세 광장'이라 불렀으나 나폴레옹 연합군을 격파한 빌슨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트라팔가 광장으로 바꾼 것이다. 광장에 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51m 높이의 화강암 기둥과 그 꼭대기에 5m 크기로 세워진 빌슨 제독(Horatio Nelson)의 동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이 동상은 19세기 전반에 가장 영향력 있던 런던의 건축가이자 도시 조경사인 (존 내쉬)가 설계하였다. 그는 동시대인들로부터 위대한 거장이라는 칭송을 받던 명장이었다.

그렇게 높은 곳에 동상을 세운 이유

는 "내가 죽어서도 프랑스를 감시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 달라"는 빌슨 제독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 한다. 빌슨 동상은 전투에서 잃은 한쪽 눈과 팔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그의 동상을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오버랩 되는 한 모습이 있다.

큰 칼을 옆에 차고 평화문 광장에 우뚝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호시탐탐 한반도 침공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다. 영국은 호국영웅 빌슨을 통하여 역사를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빌슨보다 훨씬 앞선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운 것은 그리 대단한 평가하겠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트라팔가 광장의 빌슨 기념비는 1841년에 완성됐다. 동상 주변으로 거대한 사자상 네 마리가 앉아 있는 테이 사자상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얻은 나폴레옹군의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이라니 놀라울 일이다.

기념비 하단 반침대 사면에는 빌슨 제독의 유명한 해상 전투가 청동 부조로 묘사돼 있고, 여기에는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는 국민들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빌슨 제독의 말이 새겨져 있다. 매년 10월 21일 트라팔가 전투를 기념하는 '트라팔가 데이'가 되면 빌슨 기념비에 화환을 바치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쯤에서 평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차도를 없애고, 보행공간으로 조성해서 광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시장 후보자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정권을 따라서 쫓겨나 쫓겨나거나, 태극기를 휘날리거나, 정권파도를 외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세우는 그런 볼 수 없는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빌슨을 보유한 영국은 하는 데, 영국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출신 이순신 장군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

목양칼럼



박형진 목사
(부총회장, 새은혜교회)

아직 어릴 때, 정화하게는 철없는 중학생 시절에 저지른 학교폭력가해자라는 전력이 드러나면서 체육계에 엄청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아주 잘 나가는, 정상급 수준의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 프로 배구선수 이야기이다. 이 놀랍고 뼈아픈 뉴스를 전해 들은 순간 '주홍 글씨'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남긴 단편 "큰 바위 얼굴"의 작가 나다닐 호튼(Hawthorne)이 쓴 장편 소설의 제목이다.

《주홍 글씨》라는 소설은 책 좀 읽은 사람이라면 거의 빼놓지 않고 읽었음직한 명작이다.

그 책을 읽었는지 말았는지 주홍 글씨라는 말만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이다. 그 소설은 17세기 청교도의 땅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 종말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청교도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과 숨겨진 죄의 사슬이 얼마나 무겁고 질긴가를 고발한다. 주홍글씨의 줄거리는 대충 이러하다. 뉴잉글랜드의 어느 도시 형무소 근처 교수대위에 생후 3개월이 된 아기를 안고 (헤스턴 프란) 이서었다.

그녀가 입은 상의의 가슴팍에는 또렷하게 주홍 글씨 'A'가 선명하게 수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학자와 결혼했고 남편보다 먼저 신대륙 미국 땅으로 건너왔다. 아내의 뒤를 따라오기로 계획되어 있던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마침내 소식도 끊기고 말았다.

이웃사람들은 그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 세월

을 보내는 사이에 젊은 아낙(프란)은 목사(덤스테일)와 부처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 죄의 열매인 딸과 거기 그렇게 선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감광무소식이던 그녀의 남편이 그 무렵에 나타났다. 그는 아내와 간통한 사나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고서 (로저 칠링워드)라는 이름의 의사로 신분을 바꾸고 그녀 곁으로 숨어든 것이다.

《헤스턴 프란》은 교외의 허름한 집에서 식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딸 (엘)은 친구도 없이 자유분방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편 옥스포드 출신 수재 (덤스테일) 목사는 엄격한 고행과 숨길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빠져있었고 건강 상담자(로저 칠링워드)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덤스테일)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를 목격한 뒤로 7년 세월이 지난 오월, 어느 날 밤, (덤스테일)은 (헤스턴 프란) 모녀를 만나 셋이서 교수대에 설 것을 제안한다. 목사의 깊은 고민을 알게 된 (헤스

터 프란)은 전 남편에게 목사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해 보았지만 거절당한다.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안 그녀는 함께 살고 있는 의사가 자신이 기다리던 남편이라는 사실을 목사에게 밝힌다. 축제의 일의 설교자로 나선 (덤스테일) 목사는 (헤스턴 프란) 모녀를 교수대로 불러 세우고 청중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는 그대로 죽는다.

복수심에 불타 살던 (로저 칠링워드)는 삶의 의미를 잃고 뒤이어 죽었고, 교양 있는 숙녀로 자란 딸은 외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다.

《헤스턴 프란》은 조용한 고향마을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서 (덤스테일) 목사의 무덤에 함께 묻힌다. 이것이 주홍 글씨의 내용이다. 이 글을 정리하는 내내 쌍둥이 배구선수가 내 생각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십년 가까이 세월 동안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런대로 평온하게 살아온 여인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들어

날까 봐 숨죽이며 고품과 힘든 세월을 아프게 살다가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주홍 글씨를 스스로 고백하고 숨진 목사, 비록 주홍 글씨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분노와 복수의 화신으로 서 냉혹하고도 용감한 인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의사, 호튼이 그려낸 그 당시의 인간상들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뭐가 다를까? 배구코트를 강타한 쌍둥이 자매의 어두운 이력을 접하면서 현대판 주홍 글씨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가슴에 새긴 주홍 글씨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덮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 자기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주홍 글씨를 드러내며 사과하고 갚아가는 인간, 자신의 오직과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가장 의로운 척, 잘난 체하는 것으로 사는 무개념 인간,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뉘그러기 그지없는 철면피 인간, 나는 과연 어느 과에 속하는 인간일까? 한 번쯤 깊이 자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국교회예배안내

재언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밤: 7:30

담임 임중학 목사

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원신구 안정2길 (여중화선동27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

성현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11:00

2부 11:00

수요일: 5:00

7:30

금요일: 9:00

담임 강대민 목사

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목신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

덕소제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 9:00

담임 박만진 목사

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

평안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3부 3:30

4부 7:30

수요일밤: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

담임 이경근 목사

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정평2길 85
전화 010-9928-8218

광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3부 3:00

4부 7:30

수요일밤: 7:30

담임 장영광 목사

14205 경기도 평택시 광복로31번길 (서평평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

모악교회

예배시간

새벽: 0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밤: 7:30

담임 홍주일 목사

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

소망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11:00

2부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 9:00

담임 조신제 목사

14763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4-84
전화 032-346-1235 / 010-3727-9665

예수소망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11:00

2부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 9:00

담임 류정수 목사

35020 대전시 중구 괴로로 38
전화 042-585-7004 / 010-5333-1088

남광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11:00

2부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 9:00

담임 최갑철 목사

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

낙원교회

예배시간

새벽: 05:00

주일: 1부 11:00

2부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 9:00

담임 김정봉 목사

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 2길 10
전화 010-2375-5937

화평교회

예배시간

새벽: 4:30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 오후 9:00

담임 박종목 목사

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현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

새목장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11:00

2부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 9:00

담임 김만술 목사

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암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

중심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0:30

오후 1:00

수요일밤: 7:30

담임 박경남 목사

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로 37-11(평촌동, 일산위례대역사) 10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

그루터기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3부 4:30

4부 7:30

수요일밤: 7:30

담임 최종만 목사

12208 경기도 남양주시 외무읍 수레로49
전화 010-7544-0420

한빛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3부 4:30

4부 7:30

수요일밤: 7:30

담임 임용태 목사

04778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8
전화 010-5397-2627



이혜동 목사
(은누리사랑교회)

전술한바와 같이 교회의 사역은 성경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적 기반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바른 신학적 토대 없이 실행하는 사역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호를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호에 이어서 소그룹 운영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해보겠다.

4.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란 삶이 서로 의존관계를 지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으며, 내가 아니면 내가 생존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의 상호 의존관계를 의미한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 간의 가족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교회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의 가족관계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출현을 선언하는 것

으로서 혈육의 가족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다. 공동체 건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꿈이며, 역사를 통해 추구해오셨고 시간의 마지막까지 계속하실 일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단의 도구에 대항하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그리스도인은 상호 격려와 상호 돌봄의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서로의 삶에 역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역동적 상호작용이 있는 곳에 구성원과 공동체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본질의 경험 이 가능하게 되는 기초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들의 만남은 수평적 차원의 만남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수직적 차원의 필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와 나와 두 사람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 이삼자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인 것이다. 환언하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경험은 대교회의 회중 가운데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백, 수천의 교인들과 같이 있는 가족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소그룹 경험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소그룹은 공동체의 삶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 친밀해져서 서로를 알고, 돌보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점검해주며 함께 성장한다. 따

라서 소그룹은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5. 성령의 은사를 따른 섬김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총에 속한 것으로서 오직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는 그 기능이 다양해서 기본적인 은사, 사역의 은사, 훈련시키는 은사, 표적의 은사 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은사는 성도 개개인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현재 내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특수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사 사용에는 절제하는 자세가 필

요하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 이 말씀은 은사 사용에 있어서 자제력을 내포하는 말씀인 것이다. 자제력과 더불어 은사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다(롬 12:6-8). 따라서 교회는 각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기도록 독려해야 한다. 소그룹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소그룹이다. 소그룹에는 여러 가지 필요를 안고 온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은사로 섬기는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6. 만인 제사장 원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주셨다(출 19:5-6).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 세우고, 왕 같은 권위로 열방을 다스리게 하며, 악한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였으며(롬 11:31) 오늘날 이 특권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집합적으로로는 '교회') 모두에게 주어졌다(벧전 2:9).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대단한 신분상의 변화는 단순한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만인 제사장 원리는 종교개혁에서 천명되었다. 중세교회는 성직주의에 함몰되어서 성경이 밝히는 만인 제사장 원리를 알지 못한 체 제도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세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중세교회의 성직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신도가 사역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는 90%의 평신도들이 있다. 하지만 평신도들 중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80%의 교인들은 소비자로 남아 있다. 80%의 교인들은 정기적

으로 예배석에 나와 경건한 의식에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으로 남아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교회사역을 위해 깨어 일해야 한다.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소그룹이다.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받은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써 만인 제사장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며,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 양육자,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전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고, 소그룹 리더들 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소명 받은 이들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제사장임을 확신하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인 제사장 원리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그룹 운영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바른 신학적 근거는 소그룹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소그룹 사역자들은 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서 소그룹을 세우어야 할 것이다.

묵상 내조記



양영자 사모
재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다. 내가 속한 선교 단체의 책임 간사님으로부터 나와 믿음이 같고 사명이 같은 한 형제를 소개

받았다. 봄에 만나서 결혼할 것을 결정하고 그해 10월에 결혼했다.

나는 고창서 초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전주 신흥중학교 교사였는데, 주말 부부로서 꿈 같은 신혼생활이었다. 이듬해에 나는 첫아들을 잉태했고 교직을 그만두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나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성경 선생으로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남편과 나는 뜻을 같이했다. 나는 전도하기 원했으나 전도대상자를 만나지 못했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 집안일을 마치고 방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전도대상자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했다.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해 9월부터 남편이 삼해 파출소에 방위병으로 근무했다. 당시에는 방위병 근무와 직장생활을 겸하

여할 수 있었다.

남편은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8시부터 파출소 근무로서 이중고를 감당하고 있었다.

남편은 2년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12월 1일에 첫아들이 태어났고 남편의 방위병 근무 때문에 삼해로 이사했다.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방위병 제도가 바뀌어서 근무기간이 1년 앞당겨 끝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법을 바꿔 주신 것 같이 생각되었다. 파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국가에 감사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고사동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방위 복무를 마치고 고사동 집으로 이사했다. 신흥중학교와 BRF 화관이

가까운 동네였다.

이사 후에 전신전화국에 근무하는 김00 자매가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신혼 때 눈물로 기도했던 성경공부 모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2년 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자매를 시작으로 해서 300자매, 유00자매, 박00자매, 최00자매, 그리고 양영자 사모의 딸과 아들 성경공부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힘이났다.

말씀에 비해 그들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삶을 알아가며 내 삶의 폭도 넓어졌다. 상대방과 내가 말씀 공부하면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

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요 성령님의 역사였다. 남편은 복음을 향한 나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나를 신뢰하고 만족하였다.

남편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 일찍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나는 남편의 삶을 지지하고 만족했다. 그런데 남편과 나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남편은 학교업무와 전도자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힘이났다.

나는 종일 가사와 육아와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나면 남편이 기다려지고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오면 TV를 보거나

잠을 잤다. 두 사람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없어졌다. 남편은 그러한 삶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남편과 일종달종 이야기하며 소통하기를 원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으나 굳이 잠든 남편을 깨우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났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나의 서운함과 답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텐데 왜 그렇게 해주지 못할까?

나는 남편의 곁을 멀리 떠나고 싶을 정도로 슬프고 속이 쓰렸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지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말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멍하니 쉬고 싶다.'는 것이었다. 입을 벌리기도 싫고 그냥 내 곁에 쉬고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한 말이 라도 하는 것이 고마울 정도로 반기웠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 없었으나 남편의 형편을 알고 나니 마음이 아왔다. 남편도 내게 무심한 점이 있었지만 나 역시 남편의 고충을 너무 몰랐음을 깨닫게 되면서 남편과 나 사이에 소통의 문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의 소통이 만족스럽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랐다. 결혼과 동시에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결혼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 부부는 깨닫게 되었다.

전국교회예배안내

영복교회  담임 이충년 목사 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포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	등명교회  담임 류현욱 목사 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진로길 14-31(동신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	새은혜교회  담임 박형진 목사 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전동 718 이노프리지아 7층 전화 010-8424-0688	극동선교교회  담임 박봉주 목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번길 11-9 전화 010-9980-1156	성인교회  담임 정완득 목사 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
등주교회  담임 김양석 목사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6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	월드비전교회  담임 김선영 목사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싱가내 전화 010-2301-0898	임마누엘교회  담임 윤서구 목사 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암로534번길 6-8(성남동) 전화 010-3722-9106	중울산교회  담임 김정웅 목사 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남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	소성교회  담임 이승규 목사 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
수원성심교회  담임 박춘배 목사 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	은누리사랑교회  담임 이혜동 목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빙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	꽃밭교회  담임 박광식 목사 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삼학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	한소망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	김제반석교회  담임 이부교 목사 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

온라인 강의로 하는 독학학위, 어렵지 않습니다.

1년 만에 4년제 대학 졸업

“4년제 학위취득! 교육부장관의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독학학위제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합격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
합격을 70% 이상

독학학위제 시험은
시험평가영역내 100% 출제

독학학위제 특징점

1년만에 4년제 학위취득

출석, 과제, 중간/기말 NO

60점이상 합격 / 낮은 합격 기준

시험문제는 지정범위에서만

타 제도 대비 저렴한 교육비

국가시험으로 높은 공신력

고졸이상 누구나 응시가능

시간 구애없이 일·학업 병행가능

독학학위제 추천대상

낮은 학력이 고민이라
4년제 학위취득이 목표인 분들

낮은 경쟁률로 쉽게!
명문대 편입이 목표인 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대학원 진학이 목표인 분들

학력제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취업이 목표인 분들

전 공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경영학 | 법학 | 컴퓨터과학
심리학 | 유아교육학 | 간호학 | 행정학 | 가정학 | 정보통신학

문 의
010-6358- 0191 박만진 목사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

수능없이 im Seoul,
총신대학교 학위받자!

이시대의 진정한 리더,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학교 유일 신학학사 인터넷과정!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총신대학교 학위발자!
국가자격증도 총신원격에서!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기초에 받았던 모든 학점 인정
차상위계층 수강료 감면 혜택!
모바일 수강 가능으로 학점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은 변경 및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ChongShin University

공부는 인터넷으로
학사학위는
총신대학교에서!

【 학사학위과정 】

- ① 신학학사 (총신학위/교육부학위)
- ② 사회복지학사 (총신학위/교육부학위)
- ③ 아동학사 (교육부학위)
- ④ 문헌사 (청소년학전공/교육부학위)
- ⑤ 문헌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교육부학위)

【 자격증 과정 】

-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교사자격증
- ② 사회복지사 2급
- ③ 보육교사 2급
- ④ 청소년지도사 2급
- ⑤ 건강가정사

총신원격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지금 시작하세요.

총신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 총 140학점중 신학 105학점, 사회복지 84학점 이상 총신대학교 원격 수강시
→ 총장명의 신학사의 경우 서류 및 면접, 졸업사정 통과자에 한함
- 졸업 후 총신신데일 및 일반 대학원(석사) 진학
- 총신대학교 온·오프라인 도서관 이용가능
- 풍부한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더 많은 학습실계를 통한 수업지원
- 컴퓨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원격 조정시스템 지원

문 의
010-6358- 0191 박만진 목사